



서중신문

2021-16호

- 편집장 : 황현지
- 편집위원 : 이아연, 박두빈, 손시연, 신윤경
- 지도교사 : 정 혁
- 발행인 : 김두용
- 발행일 : 2021. 7. 20

우)56342 전북 부안군 변산면 지서로 139 / 교장실 063) 583-6679 / 교무실 063) 582-8122 / 행정실 063) 582-8039

+ 학부모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학교, “변산서중학교” / 편집 이아연, 황현지

뚜벅이 하루

김두용

초록 물결이 춤추는 유월
뚜벅이와 손잡고 함께 가자.
잡은 손 놓지 말고
마실길 걸어보자.

한 두 방울 후두둑 빗소리에
이불 빨래 걱정은
강물에게나 실어보내자.
바람에게나 날려보내자.

도란도란 담소 나누며
건고 있는 뚜벅이들을
땀말기가 보고 미소짓네요.

오늘따라 바람 좋은 날
곤드레 밥에 막걸리 한 잔
뚜벅이의 행복을
바람이 흠쳐 보고 있네요.



이미화 학부모님의 ‘개암사’ 삼행시



- 개 개암사 맑은 공기
- 암 암! 암! 말이 필요 없지요
- 사 사랑과 행복 뚜벅이 친구들 화이팅 ㅎㅎ

만들고 굽고 나누고! 학부모 제과제빵 동아리

올해 매주 화요일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급식실에서 진행되고 참가하시는 분들은 변산서중학교를 비롯해 변산초등학교, 격포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제빵을 통해 성취감을 얻음과 동시에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어 자존감을 향상하고 학부모님들이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제과제빵에 참가하고 계신 김소희 학부모는 “빵을 만들면서 성취감과 즐거움을 두루 느낄 수 있었고 서로 협력하여 만들어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제빵종류는 피칸 초코 쿠키 스콘이었다.”라고 소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 동아리를 통해 막연하게 어려울 것만 같던 제과제빵이 친숙하게 다가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쉽게 홈베이킹을 하여 추억을 만드는 좋은 기회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취재 김지우



(변산서중학교의 제과제빵교육은 수년 간 다꿈키움학교, 어울림학교, 혁신학교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인근의 변산초등학교, 격포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어오고 있다.)

Contents

2 + 학생들의 꿈을 현실로, 진로 체험

- 달콤한 향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다, 조향사 체험
- 옹고 그림을 판결하는 법조계 직업 체험
- 특수 메이크업 직업 체험
- 제빵사 진로 체험

3 + 도전을 통해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혁신학교

- 학생간의 공감과 소통으로 진행된 교내 스포츠클럽 대회
- 도자기 공예
- 수업 나눔 프로젝트
- 뚜벅뚜벅 걸어나가자 변산 마실길 걷기

4 + 선생님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

- 박찬영 선생님 (도덕 교과 담당)
- 김미향 선생님 (체육 교과 담당)
- 최나영 선생님 (역사 교과 담당)

5 + 학생들의 참여의식이 꽃피는 학교 행사

- 도박 예방 교육
- 다 함께 피하자, 화재 대피 훈련
- 나와 다름을 인정해요, 다문화 이해교육

6 + 학생들의 특기를 살려 적성을 찾는 시간

-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부
- 다양한 악기 소리가 어우러지는 밴드부
- 꿈을 그려내는 미술부
- 손과 현이 만나 마음을 표현하는 기타부

7 + 동아리 활동과 어울림 학교

- 춤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는 댄스부
- 새로운 친구, 탁구를 만나보세요
- 우리는 한 가족, 어울림 학교 프로젝트
- 새로운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다, 이중언어 동아리

8 + 영문 기사 및 기타 대회

- Our Essays
- The first drill. Let's escape it together.
-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춘계독후감발표대회>
- 과학의 달 <교내 과학탐구대회>

달콤한 향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다, 조향사 체험

지난 4월, 변산 서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유 학년제 활동으로 조향사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24명이 참여했으며, 체험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체험은 조향사가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고, 직접 향수를 만들어보며, 자신에게 맞는 향을 만드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조향사는 여러 가지 향료를 배합하여 새로운 향을 만들거나 향의 이미지를 구체화하여 필요한 상품에 적용시키는 일을 한다고 하며, 실제 전문적인 조향사는 3천여 가지의 향을 구분할 수 있고, 조향사가 되려면 창의력과 표현력도 우수해야 한다는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조향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 다양한 향을 직접 시험하여 보고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향수를 만들어서 뿌려보기도 하였습니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원하는 향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직접 향수를 만들어보며 어떤 향과 어떤 향이 잘 어울리는지, 나와 잘 어울리는 향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 유익하였고, 좋은 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며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

■ 취재 유은서

옹고 그림을 판결하는 법조계 직업 체험

4월 26일, 변산서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법조계 관련 직업 진로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체험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검사와 변호사 등의 직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정에서의 분위기, 법원에서의 판결 순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판사나 변호사, 검사, 피고인, 배심원 등 각자 역할을 나눠 강사 선생님께서 미리 작성해오신 대본을 읽으며 현장을 체험해봤으며, 법복도 직접 입어 보아 실제 법정에서 온 것처럼 생생한 느낌을 느껴봤습니다.

이 진로체험은 검사나 판사가 꿈인 학생들에게 귀중한 시간이었고, 자신의 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취재 이채진



특수 메이크업 직업 체험

6월 30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변산서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 분장사 직업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특수 분장사란, 배우들에게 특수 분장을 해주는 전문직 종사자로 영화, 연극, 방송 및 광고 등에서 출연자의 특성을 강조하거나 일반 분장으로 보여줄 수 없는 효과를 내기 위해 출연자에게 특수 분장을 해주는 직업입니다. 주로 상처나 귀신, 좀비같이 두드러진 효과를 내는 데 활용됩니다.

먼저 상처 메이크업과 화상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직접 파스텔이나 가짜 피, 실리콘 등을 이용해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체험 활동이 끝나고 4교시에는 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여쭙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특수 분장사라는 직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 취재 이지원



제빵사 진로 체험

7월 1일, 1교시부터 2교시까지 변산서중 1학년 학생들은 제빵사 진로 체험을 했습니다.

1교시에는 제빵사가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제빵사란 빵, 케이크, 쿠키, 파이 등 다양한 빵 및 과자를 전문적으로 만들며, 새로운 제과제빵 메뉴도 만들고, 청결 및 재료 관리도 담당하는 직업이라고 말했습니다.

2교시에는 직접 빵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빵을 만들면서 친구들과 협동심을 기르고 제빵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굽는 동안에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며 제빵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체험에 참여한 1학년 한효주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효주 학생은 “빵이 구워지는 과정을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었고 지금까지 진행된 진로체험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 취재 안대현



학생 간의 공감과 소통으로 진행된 교내 스포츠클럽 대회

5월 21일, 본교 체육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내 스포츠클럽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교내 스포츠클럽 대회를 하면서 평소엔 하지 못했던 달리기나 판 뒤집기, 단체 줄넘기 등 여러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답답함을 해소하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에 서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스포츠클럽 사업을 추진하신 손민재 선생님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손민재 선생님께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스포츠클럽 종목 및 규모도 축소, 운영하여 학생들의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정서적인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였다.”라고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제약으로 인해 체력 소모가 심한 스포츠 경기는 진행하기 어려웠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학생들 사이의 공감과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취재 유성범



도자기 공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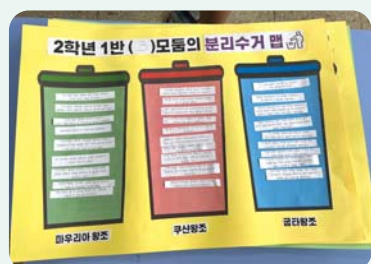
5월과 7월, 변산서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통 문화 체험인 도예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예란 도자기 공예를 줄여 말하는 것으로, 도자기를 가공한 공예품 혹은 가공 기술을 뜻하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벽화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힐링과 휴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체험에 다녀오신 손민재 선생님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손민재 선생님께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화면에서 벗어나, 도자기에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며 정신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느끼기 힘들었던 힐링과 휴식을 맛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체험에 참여한 2학년 신윤경 학생은 “직접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도자기 벽화를 제작해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나중에 도자기가 구워진 뒤에 작품을 보면 뿌듯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취재 남보현

수업 나눔 프로젝트

지난 5월, 2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수업 나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업 나눔 프로젝트는 역사 시간에 최나영 선생님께서 진행해주셨고, 먼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의 복습,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학습, 마지막으로 학습 게임인 분리수거 게임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이 수업을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참관하시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수업을 참관하신 손민재 선생님께서는 “교사의 근본적인 성장은 여러 사람과 부대끼면서, 자신의 모난 인격이 둥글어지고, 더 많은 사람을 내 안에 들여놓을 때 비로소 성장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수업 나눔, 융합 수업으로 동료 교사와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더 나은 수업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취재 이사랑



내고장 체험학습 변산 마실길 걷기

5월 22일 변산서중학교 김덕중 선생님과 변산서중학교 학생들이 변산 마실길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찾은 <변산마실길 6코스>는 모항 해수욕장-모항-모항갯벌체험장-변산자연휴양림-마동방조제-작당마을-왕포마을 순으로 거치며 총 거리는 약 6km입니다.



참여한 학생 중 박두빈 학생은 “오랜만에 산에 올라서 힘들었지만 뿌듯했다. 그리고 어울림 학교가 있어 주말마다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즐겁고 친구들과, 선생님 이랑 얘기하면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한 김덕중 선생님은,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상쾌한 마실길 한 번 걸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고 합니다. ■취재 최병훈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들과 Interview



최나영 선생님 (역사 교과 담당)

Q.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여기 서중학교에 오기 전에도 변산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예뻐서 '이곳에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선생님과 학생 간의 소통과 교감이 원활할 것 같았습니다.

Q. 학교에 오신 뒤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A. 스승의 날 행사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각 반 친구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써준 롤링페이퍼를 읽으면서 감동도 받았고, 카네이션을 옷에 손상이 가는 옷핀이 아니라 자석으로 준비해준 세심함도 좋았어요.

Q.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A. 맡은 일을 잘 수행하는 학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있을 때 편하고 친근한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김미향 선생님 (체육 교과 담당)

Q.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좋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또 사제 간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았고, 자연적인 환경이 학생들의 공부 효율을 더욱 높여주는 것 같아 변산으로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Q. 학교에 오신 뒤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A. 저는 체육대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고르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Q.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A. 항상 밝고 즐겁게 성장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체육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들과 열심히 소통할게요.



박찬영 선생님 (도덕 교과 담당)

Q.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원래 근무하던 곳은 자연과는 거리가 있는 곳이었었는데, 제가 자연을 좋아하기도 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근무해보고 싶어서 이곳 변산으로 오게 되었어요.

Q. 학교에 오신 뒤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A. 제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누가 언제 등교하고 언제 하교하는지 알만큼 사제 간의 사이가 가까운 것 같아서 좋았어요.

Q.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A.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학교 시절을 생각했을 때 후회가 없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결같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6월 1일, 변산서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을 목적으로 한 도박 예방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할 예방 교육이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흥미롭게 예방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도박의 위험성과 도박에 중독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우리 학생들은 배웠습니다. 예방 교육을 다 들은 후에 퀴즈를 통해 도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한 안대현 학생은 “자신이 도박에 중독이 되었나 체크도 해보고 만약 중독이라면 나중에 상담도 받을 기회도 있어 유익하고 도움이 된 교육이었습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 취재 손시연



나와 다름을 인정해요, 다문화 이해교육

지난 5월 26일 변산서중학교에서 수요일 7교시에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각 반에 각기 다른 나라 선생님과 음식을 보고 이야기를 하며 다문화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는 시간이었고, 학생들도 강사님들도 서로 만족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유익했다는 평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다문화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이해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해 교육을 받은 1학년 이정은 학생은 “이번 다문화 수업을 듣고 다른 나라에 대해 전보다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다른 나라의 전통 음식, 전통의상 등을 알 수 있어 유익했고, 재미있었던 다문화 이해 교육 수업이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권유를 하였다고 합니다.

■ 취재 김다은



학생 자치회와 함께한 사이버폭력예방 캠페인

지난 5월 14일 변산서중학교 학생회 학생들과 김덕중 선생님이 친구사랑주간에 사이버폭력예방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침 등교시간에 맞춰 교문 앞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학생회장 김하은 학생을 비롯한 학생회 임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등교하여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학생회장 김하은 학생은 “갈수록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 심각성을 알고 피해를 주지도 입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며, 이번 캠페인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 취재 유성범



다 함께 피하자, 화재 대피 훈련

무더워지는 6월 2일, 변산서중학교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전교생들이 선생님들의 지시를 받고 사이렌이 울리면 지정된 장소인 운동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각 반에서는 모두 선생님의 지시대로,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참여해주었습니다. 대피하기 전에 영상도 보고 영상에서 보던 대로 행동하여 훈련은 막힘없이 흘러갔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가서 선생님 말씀도 듣고 퀴즈도 푸는 등 협동심을 기를 수 있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화재 대피 훈련에 참여한 2학년 황현지 학생은 “화재 대피 훈련 준비를 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미리 방송 준비도 해보고 화재 예방 동영상도 보아서 유익하였습니다. 다음번 화재 예방 교육 때에는 열심히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 취재 이서윤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퍼지는 바이올린부

바이올린 동아리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해주고, 동아리를 통해 취미생활을 만들어 학생들의 일상 속의 한 부분으로 녹여주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곡에 대한 흐름과 느낌을 알아가며 점차 바이올린에 재미를 느끼고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이올린 동아리 이정석 학생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이정석 학생은 “처음에는 바이올린에 대해 잘 몰랐지만, 바이올린 동아리를 통해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수 있는 노래의 특징을 알고 바이올린을 켤 때 성취감 있었고 새로운 취미를 찾은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바이올린 동아리 활동은 멀게만 느껴지던 서양 현악기인 바이올린이 조금은 친근하게 다가오게 해주었고 학생의 취미생활 그리고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 취재 최다운



다양한 악기 소리가 어우러지는 밴드부

변산서중학교 음악실에서는 매주 특기 적성 시간마다 신나는 밴드 음악이 들려옵니다. 밴드 동아리는 학생들의 취미와 진로를 키워나갈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밴드부는 피아노, 기타, 보컬, 드럼 등 총 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랜 연습 끝에 여러 악기가 하나의 선율로 어우러져 절로 흥이 나는 연주가 되었습니다.

밴드부에서 베이스를 맡은 김다운 학생과 인터뷰 해보았습니다. 김다운 학생은 “밴드부에 들어와 연주하는 것은 처음이라 어렵거나 힘들까 걱정했지만 정말 재밌어서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진다. 내년에도 가입하고 싶은 동아리이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나는 밴드부 연주에 꼭 빠져보시는 것 어떨까요?

■ 취재 이준호



꿈을 그려내는 미술부

미술 동아리는 학생들 내면에 존재하는 예술적인 힘을 키워나가고자 만들어졌으며, 평소 미술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친구들은 미술에 대한 깊은 부분까지 배워 효율적인 동아리 시간을 되었습니다.

평소 미술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3학년 2반 김단 학생은, “미술 동아리를 하면서 지도교사인 윤인아 선생님의 친절한 가르침과 착한 미술부 친구들 덕분에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다양한 미술 활동을 하며 저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 취재 이준호



손과 현이 만나 마음을 표현하는 기타부

기타부는 통기타를 배워보며 아날로그 감성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우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음악 활동을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악기로 손꼽히는 기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학생들의 호응이 있는 동아리인데요, 지도교사 나향탁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이 통기타를 통해서 자신의 감성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하며, 서연축제 등의 시간에 그 재주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하며, 우리 학생들의 배움에 많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 취재 유성범



춤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는 댄스부

지난 3월부터 매주 수요일 5, 6교시에 이루어진 댄스부의 활동은 5월 21일 체육대회에서 세 곡의 무대로 그 꽃을 피웠습니다.

댄스 동아리를 만들게 된 취지는 ‘댄스를 하면서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운동 대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댄스를 하며,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인데요. 여러 장르의 음악을 통해 개인마다 자신에 맞는 춤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댄스부에서 활동 중인 2학년 1반 황현지 학생 “댄스부에서 춤을 배우며 선배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고, 춤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춤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해주었습니다.

■ 취재 정경훈



새로운 친구, 탁구를 만나보세요

지난 3월부터 매주 수요일 5~6교시에 이루어지는 탁구부는 남학생 7명,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탁구부의 선호도가 남녀를 불문하고 매우 높아, 현재 선발된 부원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되었다고 합니다.

탁구는 영어로 table tennis, 즉 탁자에서 테니스를 하는 것으로, 직접 필드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테니스와 달리 비교적 움직일 거리가 적어 테니스보다 접하기 쉬운 운동입니다. 하지만 탁구가 마냥 쉬운 운동은 아니라는데요, 2학년 최강호 학생은 “빠르게 탁구대를 넘나드는 탁구공을 보고 정확하게 쳐내다 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마냥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데요, 2학년 이준호 학생은 “직접 탁구를 해보니 힘들기도 하지만, 공을 받아내거나 상대를 이기는 쾌감은 정말 최고이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즐겁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탁구,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 취재 최병훈



우리는 한 가족, 어울림 학교 프로젝트

6월 15일, 변산서중학교 2학년 학생 중 4명이 변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교 ‘우리는 한 가족’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프로젝트는 변산서중학교 학생 중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매년 변산초등학교에 방문해 6학년 학생들에게 융합 과학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시간 동안 LED를 주제로 하여 LED 별자리 오르골, LED 마스크 줄, LED 글라이더, LED 방향제 교구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활동에 참여한 박두빈 학생은 “1년 뒤 들어올 6학년 친구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또 가보고 싶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 취재 이아연



새로운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다, 이중언어 동아리

변산서중학교에서는 매주 목요일 2시간 동안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이중언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고등학교 제2외국어 중 일본어가 포함되는데 이중언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진학 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언어를 배우는 학생 중 3학년 이성언 학생에게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3학년 이성언 학생은 “이중언어교육에서 평소 접하지 못한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좋고, 후배들과 서로 모르는 언어를 알려준다거나 서먹한 친구, 후배들 친해질 수 있어서 좋다.”라고 그 소감을 전했습니다.

■ 취재 최이준



Our Essays (The things that I want to change)

♣ My Bad Study Habits

I want to change my study habits. I can't concentrate on anything while I'm studying. I used to text to my friends or chat with them through Facebook and Kakao messenger when I study something. From now on, I'm going to change my bad habits.

First of all, I'll turn off my cellphone while studying. Second, I'll try to focus on my studying and family. I'll read some books after studying.

Lee A-yeon, Second-year

♣ My Eating Habits

I'd like to change my eating habits recently. I used to eat some junk food like hamburgers, pizza. I know it is bad for my health, so, I will do two things to break my bad habits.

First, I will eat less flour-based food. Second, I'll not skip regular meals. Finally, when I feel hungry, I'll have some balanced meals instead of junk food.

Sin Yoon Kyung, Second-year

The first drill. Let's escape it together.

We had a fire drill on June 2nd, 2021. All students moved to the playground to escape in a fire situation virtually and participated well as their homeroom teachers' ordered.

Before this fire drill, we watched some videos related to emergency evacuations in case of a fire. As soon as it finished, we had the time to solve some quizzes about this occasions.

It was helpful time for al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case of a fire.

Hwang hyun-ji, a second-year student said, "This is the first time I've participated for a fire drill. So, I was somewhat nervous. However, It was a good time to join this while preparing for some broadcasting related to this conditions.

Kim ha-eun, a third-year student said, "It was a helpful experience to have a training that we can evacuated in case of a fire like a real fire situation. If I had a fire condition, I can run away immediately from emergency situations.

Third-year students

Kim ha eun, Kim dan reporting and Translation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춘계독후감발표대회>

올해 변산서중학교의 춘계독후감발표대회는 5월 12일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3학년 김가은 외 4명의 학생들은 학생회실에서 유튜브를 통해 열린 대회에 참가하여 자신들이 읽었던 도서의 감상을 미리 준비한 원고를 바탕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학년 황현지 학생은, "코로나 상황이라 비대면으로라도 이런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 다행이며, 더불어 좋은 결과도 나와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산서중학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 대처한 교육과정을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취재 김다은



과학의 달 <교내 과학탐구대회>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변산서중학교에서는 교내 과학탐구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융합과학, 과학토론, 과학탐구실험, 과학시화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과학과 김덕중 선생님이 진행하셨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실시되었으며, 과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제고할 수 있었다는 교사들의 자평과 함께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1학년 유은서 학생은 "중학교에 진학해서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과학에 더 흥미가 생겼다."라고 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취재 최강호

